

보건의료단체연합 활동가들이 본 2003년 이라크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우 석 균

이라크의 정치적 상황을 포함한 포괄적인 평가는 필자에게 맡겨진 과제가 아니므로 여기서는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소속의 활동가들과 의료인들이 2003년 4월과 5월 그리고 7월에 이라크의 바그다드를 방문하여 보고 들은 바를 중심으로 기술하도록 하겠다. 포함될 내용은 현지방문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인상에 대한 간략한 서술과 현지에서 시행한 이라크 주민들의 건강상태와 의료이용조사 등의 역학조사와 진료내용 등이다. 여기의 자료들은 일부 발표된 내용도 있고 앞으로 발표될 내용도 있지만 오늘 자료의 성격상 보건의료 상황이나 의료지원에 한정된 내용만이 아니라 운동가로서 느꼈던 내용들을 포함시키도록 노력하였다.

1. 이라크의 현재

가. 입국과 출국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라크를 아랍에미레이트의 공항을 경유하여 요르단의 암만까지 비행기로 가고 그곳에서부터 국경지대를 통해 입국하였다. 이 루트는 유엔산하의 NGO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NGO들이 이라크로 들어가는 경로였는데 사우디아라비아의 북동쪽 영토 한자락을 차지하고 있는 친미토후국(에미레이트라는 말이 토후국이라는 뜻)으로 왕정국가인 아랍에미레이트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에 의해 성립되고 유지되는 역시 왕정국가인 요르단을 통해 입국한다는 것은 이 국가들이 미국의 대 중동 기지국가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라크 국경에서의 입국은 오히려 별 다른 검사가 없지만 요르단이 이를 대행하는 듯 매우 엄중하였다. 이는 4월 입국당시보다 시일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엄중해졌는데 5월말 출

국시에는 여성의 핸드백은 물론 신체검사까지 하는 일이 일상사가 되었다. 국경에서 요르단 당국을 통해 행해진 ‘보안검사’는 민반출되는 무기와 골동품을 수색한다는 명분으로 진행되었으나 5월말 출국시 보건의료단체연합이 행했던 이라크 어린이 전쟁관련 설문조사 결과지(아랍용어로 되어 있었음)가 문제가 되어 현장 책임자에게까지 불러갔던 것을 보면 ‘요르단 정권의 보안’과 ‘혁명 예방’의 문제가 개입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¹⁾ 한편 이라크사람들의 요르단에 대한 인식은 바그다드의 요르단 대사관이 공격을 받은 사건으로 그 일단을 파악할 수 있다²⁾.

나. ‘정밀폭격’

한국의 모 인사는 이라크전황과 관련하여 국내 언론에 글을 기고하면서 ‘족집게폭격’이라는 용어를 써가면서 미국의 정확한 폭격솜씨를 칭찬하였다. 그러나 보건의료연합의 활동가들이 눈으로 본 바로는 전쟁이 치열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진 바그다드에서도 많은 민가와 모스크가 파괴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의도적이건 비의도적이건 간에 발전시설이나 상하수도 시설의 파괴도 동반되었다³⁾.

족집게 폭격이 있기는 했는데 언론과 통신시설의 파괴가 대표적이었고 이는 여전히 지금 까지도 불통이다⁴⁾. 바그다드에서 정부건물 중 멀쩡한 건물은 단 하나였는데 다름아닌 석유 자원청이다. 이는 바로 옆 건물인 수자원청이 완전히 파괴된 것과 뚜렷이 비교되는 것이다. 물론 이 건물에서는 미국이 석유관련 업무를 신속히 재개하였다⁵⁾.

다. 안전문제와 총기

- 1) 덧붙여 무기는 말할 것도 없고 골동품의 경우도 무장세력의 자금줄이 된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이라크의 유적보존에 왜 요르단 정부가 관심이 많은지를 알 수 있다. 침언하자면 이라크의 주요유적지는 미군이 점령하여 외부의 접근을 완전히 차단하여 이라크인들사이에서는 미군에 의한 유적품의 약탈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문이 자자하다.
- 2) “바그다드주재 요르단 대사관이 공격을 당했다. 이라크인들은 폭발 후에 요르간 국왕 압둘라 2세와 그의 부왕 후세인의 초상화를 파손하였다고 전해졌다.....소식통에 의하면, 이라크인들은 사담 후세인 정권을 전복시킨 이번 전쟁에서 요르단이 미국을 지지한 것에 대해 아직도 분개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지난 수년간 요르단에 있는 이라크인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에 대한 분개도 있다고 한다. 많은 이라크인들이 요르단이 이라크의 oil-for-food프로그램 덕에 싸거나 공짜 기름으로 이익을 보았다고 생각하고 있다” BBC 2003.8.7 (보건연합 김주연역)
- 3) 잘 알려져 있다시피 91년의 걸프전에 의해 파괴된 발전시설이나 도로시설이 1/3정도밖에 복구되지 못한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말하자면 더 파괴할 사회인프라도 별로 남아 있지 않았다는 말이다.
- 4) 중립적 외관을 띠었던 알 자지라 방송 또한 족집게 폭격의 대상이 된 것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 5) 이라크가 국경지대의 석유공의 화재에 대해 미국언론들은 전쟁의 파괴행위로 엄청난 비중으로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언제부터 미국 언론들이 환경문제에 이토록 지대한 관심을 가졌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치안문제는 전쟁이후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5월까지만 해도 낮에 한국사람들이 혼자 돌아다니는 것이 가능했고 밤에만 조심하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지금은 낮에도 외국인이 혼자 돌아다니는 것은 절대 금기가 되었다. 7월에 현지조사를 다닌 연합소속 김나연씨에게 “지금 이라크인들에게 외국인들은 모두 달리로 보인다”는 이야기와 함께 사드시티⁶⁾를 갈 때에는 운전사가 같이 가는 것도 모자라서 ‘보디가드’를 대동시키고서야 이라크인들이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어떤 지역은 아파트지역을 가면 아파트 위에서 낮선 사람을 향해서 무조건 사격을 가하기 때문에 사망이나 부상이 많다고 할 정도이다. 병원 사망의 가장 큰 원인이 총기로 인한 사고이고 가구당 보유 총기수가 4개라는 통계는 미국이 치안방기라는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미국식 총기소유를 이라크에 이식하고 있는 상황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정말로 안전상에 문제가 되는 것은 미군이다. 5월 때의 방문때만 하더라도 시위는 중심지에서만 주로 한정되어 있었고 미군도 시내주요거점에만 자리를 잡고 있었다. 밤에 이루어지는 총격전도 가끔 총소리가 들리는 정도였다. 그런데 7월에 방문한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미군이 치안문제를 내걸고 집집을 수색하고 민간인의 머리에 총을 들이대는 것이 예사라고 하며 밤에 들리는 총격소리도 총소리가 아니라 헬리콥터소리이고 교전에 준하는 소리도 들린다고 한다.

평화적 시위도 일상화되었지만 다른 한편 미군기지에 대한 공격도 매일 몇건씩 일어나는 등 조직화되어 이 때문에 미군은 그야말로 모든 이라크인들을 적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고, 평화시위에 대한 발포와 민간인 사살이 매우 자주 일어나고 있다고 전한다. 이 과정에서 어린이와 여성들의 총상피해가 많다고 한다.

미군을 상대로 한 매춘이나 미군에 의한 강간사건이 매우 많다는 보고도 있는데 이 사실이 알려지면 그 가족들이 수치심 때문에 여성을 죽이거나 내쫓는 경우가 많으므로 은폐되는 경우도 많아 정확한 규모는 파악할 수 없다고 한다.

“전쟁 전 4년간 저는 총상 환자를 두 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수백건씩 봅니다.” 의사 알리 칼리드씨가 메디컬시티 수술실에서 총상환자의 상처를 꼬메면서 말한다. 의사들이 매일 수백명의 환자와 씨름하는 14개 침상의 응급실에서 총상환자의 증가는 너무나 확연하다. 금일 오후에만 12분 사이에 세명의 총상환자가 들어왔다. 입에 총알을 입은 여자, 팔에 총알이 박힌 젊은이, 가슴에 총알을 맞은 50대 남자 -- 이 남자는 혼자서 걸어들어왔다. 이 남자의 가슴 사진에서 에이케이47의 총알로 보이는 이물질이 마치 은빛 목걸이처럼 빛났

6) 인구 400만명을 포괄하는 바그다드내 지역명으로 이전에는 사담시티였으나 후세인에게 저항하다 일가족이 처형당한 시아파 지도자의 이름인 사드로 바뀌었다.

다. 다음날 이 남자는 사라졌다. 의사들도 이자가 치료를 받았는지, 수술중인지, 대기중인지, 죽었는지 알지 못한다. 의사들은 바그다드의 폭력사태에 전혀 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말한다. 또 미군의 침공에 따른 정치적인 공백상태가 의료체계를 재건하는 노력을 가로막는다고 한다. "여기는 안전도, 물도, 냉방시설도 없습니다." 의사 압바스 칼리파가 말한다. 그는 지난 12시간동안 응급실에서 200명의 환자를 보았는데, 그중 다수가 총상 환자였다."7)

라. 이라크인들의 생활과 미국

가구별 현지조사를 다닌 보건의료단체연합의 한 활동가는 이라크 사람들의 생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가구조사를 다니면서 느낀 점은 낮시간에 가구를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남자였다는 점이다. 직업은 대개 무직이었고 무엇을 먹고 사는가라는 질문에는 웃고 말거나 모아둔돈 이라고 대답하거나 월 40달러정도의 보조금 등의 대답이 전부였습니다. 실직문제나 생활상의 수입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명확한 상황이었어요"8)

가디언지는 5월 말 한 이라크인의 말을 빌어 이라크인들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바가 있다. "전쟁전에는 우리는 자유가 없었지만 직장과 안전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자유는 있지만 직장도 식량도 물도 안전도 없다".

치안문제는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다. 더 큰 문제는 실업의 문제이다. 치안도 유지되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이 정부재건을 위해 노력한 것은 아무런 권한도 가지지 못한 이라크인들의 위원회조직을 겨우 구성한 것 외에는 별다른 것이 없다.

전쟁후의 혼란기는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치안상태는 악화일로에 있고 기타 상황도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빵이 조금 값싸다는 소문이 나면 200m가 넘는 줄이 상점앞에 생길 정도로 식량상황이 열악한 상태이고 직장이라고는 구할 수가 없는 상태이다. 보건연합이 이라크 현지조사를 하면서 임시고용한 이라크인들의 학력수준이 군에서의 의무장교급이거나 바그다드대학교 교원이었다는 점에서 잘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현재 미군이 월급을 지급하는 사람들은 세 직업의 사람들인데 경찰, 의사 그리고 교사들이다. 심지어는 군인들의 월급도 지급하지 않고 있어 군인들의 불만이 매우 크다고 한다.

7) Doctors, hospitals under strain as violence plagues Baghdad BAGHDAD, July 20 (AFP)(보건의료연합, 김주연역)

8) 보건연합, 원선아, 이라크 방문후 구두보고 내용 중 일부

이렇다 보니 사회복지에는 아예 기대를 말아야 할 것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CPA(The US-led Coalition Provisional Authority, 미국주도 연합임시당국)은 보건의료예산을 '후세인 집권기인 2002년도 예산의 70배가 넘는 210million dollar가 금년 후반기 의료장비 확보를 위해 쓰일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로 지역의 일차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진료소는 그것이 민간에 의해 새로 건설된 것이든, 이전의 공적 보건의료기관이든 지원이 거의 전무하거나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진료소조사는 7곳의 공적 보건센터(official health center)와 12곳의 전쟁후에 세워진 자발적 보건센터(voluntary health center)를 방문해 진료소장과 의사들과 인터뷰 및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공적보건센터는 전쟁 전에는 ministry of health로부터 약을 사야 되서 환자에게 진료비용에 약값을 따로 받았으나 6월부터 약을 무상으로 받고 있고 45월에는 보건성으로부터 약 및 백신(직원 월급도)을 공급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보건성으로부터 제공받는 약은 양이나 질적으로 제한이 있습니다. 어린이 영양사업은 UNICEF후원으로 저체중 어린이들에게 매달 1200gram의 고단백 비스킷을 주고 있었습니다.”

“자발적 보건센터는...모든 진료소에서 환자에게 진료비만 받고 약값은 부담시키지 않기 때문에 mosk나 적신원사 또는 외부 NGO로부터 한 두차례 정도의 약 지원밖에 받지 못한 대부분의 진료소는 재정적으로 취약해지고 있었습니다.....보건성으로부터의 약 공급 및 시설 및 재정 지원, 예방 및 교육 사업을 희망하고 있으나 보건성이 정식 진료소로 인정해주지 않거나 운영 및 인사권을 요구하고 있어 별다른 진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⁹⁾

보건연합의 조사원들이 현지의 알까마리아 보건센터(자발적 보건센터의 하나이다) 진료소를 방문하였을 때 우연히 미군들이 보건소를 방문한 것을 보았는데 미군은 의약품지원을 하겠다고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한다. 그런데 미군에 대한 의사들의 태도가 매우 불친절해서 사실정황을 물어본 결과 미군들의 실제로의 방문 목적은 이라크인들의 지역자치위원인 진료소 의사를 만나 다음날 어린이 놀이터를 치워주겠다고 통보하는 것이 주목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또한 어린이 놀이터를 치워주는 것도 그곳에 무기가 묻혀 있다는 정보를 토대로 한 '치안활동'의 일부라고 판단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다.¹⁰⁾

사회인프라의 파비도 심각하다. 상하수도 시설은 악화일로에 있고 길거리 곳곳에 하수도가

9) 보건연합, 이라크 의료지원에 대한 김나연씨의 보고 축약, 2003. 8.15.(미발간). 미군당국은 여기에서도 보이듯이 이라크인들에 의한 자발적 재건노력에는 물자를 전혀 지원하지 않는다.

10) 보건연합, 김나연, 이라크방문후 구두보고 내용 중 일부

있는 것이 아니라 각 가정에서 중력을 이용하여 길 한복판에 새로 판 커다란 하수도로 흘러 들어가는 하수구가 파여있는 형편이다. 깨끗한 물을 기대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힘들다는 보고이다¹¹⁾).

여기에서 제대로 옷도 못입은 어린이들이 뛰어 놀고 이들이 총상을 입고 파편에 의해 다치고 병원에 가도 의사가 없고 약품이 없는 것이 이른바 이라크의 사회복지의 현실이다.

마. 사담 후세인, 미국, 저항

4, 5월에 방문했을 때에는 현지조사와 지원 때문에 만났던 이라크인들(보건의료단체연합이 활동했던 곳은 뉴바그다드의 시아지역이었다¹²⁾)은 미국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후세인이 물러간 것에 대한 기쁨도 동시에 가지고 있었고 미국에 대한 일말의 기대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후 미군이 주둔한 후 민중의 생활이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악화되고 후세인이라는 대상이 사라짐으로 해서 이제는 미국에 대한 항전이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은 7월에 방문한 보건연합 소속 정상호씨의 전언이다.

“아침에 L이 어제 후세인의 자식들이 죽었다고 한다. 그날 내내 그들의 죽음이 화제였다. 통역자 중 한 사람인 H는 우다이와 쿠사이의 죽음에 대해 매우 흥분해있었다. 그들은 죽어 마땅하지만 이는 이라크인들의 몫이라는 이야기다. 미국은 그들을 단죄할 자격이 없다고 한다. 그리고, 그들은 죽지않았으며 그들의 죽음은 미국이 조작한 것이라고 단언한다.

하기사, 정황을 보면 의혹을 살만한다. 고작 5-6명에 불과했다고 하는 후세인의 아들 일행과 미군 200명이 4시간이나 총격적을 벌였고 심지어 아파치 헬기까지 떃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로잡지도 못하고 폭사시켰다. 시신 훼손으로 인해 그들을 후세인의 아들들이라 확정 한것은 치과기록이었다고 한다. 좀 이상하긴 하다. 하지만 정황으로 볼 때 이를 조작해서 미국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적은 반면 조작이 폭로되었을 때 가져야 할 부담은 너무도 크다. 그러나, 다른 통역자들에게 물어보니 모두들 조작이라 생각하며 모든 이라크인들은 그렇게 믿는다고 한다.

아랍계 신문들은 이 사건을 보도하며 “미군정은 그렇게 주장했다”라는 식으로 기사를 싣고 있었다.

그들이 어떻게 발견되었냐고 물어보니 스파이가 제보한 것이라고 전하면서 그 스파이 놈을 “반드시 처단할 것이다”라고 말해서 우렐 놀라게 했다.

사담이 없어진 지금 이라크인들의 분노는 점차 미국으로 집중되고 있다. 전쟁 후에 바뀔

11) 보건연합, 김나연·원선아, 이라크 방문후 구두보고내용 중 일부

12) 이라크의 인구는 2700만명정도이고 이 중 시아파가 60-65%, 수니파가 35-40% 정도이며 기독교도와 기타 종교등은 1%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것은 오직 얼굴 뿐이다(사담에서 미국인으로)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고 심지어 미군들이 검문 검색을 하면서 값비싼 물건이 있으면 이를 가져간다는 말들도 있다.

그리고 H는 우리에게 자신은 한 명의 미국 군인을 죽이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있다고 분노어린 목소리로 말했고 곁에서 듣는 다른 통역자들도 비장한 표정으로 공감 을 표시하고 있었다. 이들은 시아파이고 중산층 이상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전반적인 이라크인들의 정서를 읽을 수 있었다.

심지어 때로 매우 냉소적이며 결코 총을 집에 두지 않고 폭력을 증오한다는 D 역시도 만약 필요하다면 미군과 싸우는데 나서지 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¹³⁾

1. 이라크 의료지원활동

가. 총괄보고

(1) 들어가는 말

세계보건기구는 다음과 같이 전쟁이 미치는 건강상의 영향을 열거하였다.

- 1) 생명의 손실
- 2) 신체부상
- 3) 광범위한 정신장애
- 4) 기존의 영양장애의 악화(특히 어린이들)
- 5) 전염병의 창궐,
- 6) 단순하고 예방가능한 예를 들어 설사같은 질병의 생명의 위협
- 7) 정상상황이라면 쉽게 치료될 만성질환의 치명적 악화,
- 8) 임신과 출산의 위험성의 확대

한겨레신문사와 함께 여러 종교사회단체들과 함께 한 “이라크 어린이에게 의약품을”이라는 캠페인의 일환으로 이라크 의료지원활동을 시작한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라크 현지에서 비록 전쟁이 실질적으로 종결된 이후의 상황이었으나 세계보건기구가 지적한 여러 전쟁이 미치는 영향을 대부분 확인할 수 있었고 전쟁은 전염병과 장애처럼 의 료진이 온 힘을 다해 막아야 할 대상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이번 이라크 의료지원활동은 국제적인 반전평화운동의 일환으로 한국에서 실질적으로 최초의 반전평화운동의 하나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의의가 컸다. 한겨레 신문에서 캠페 인을 시작한 후 최초 3일만에 7000여만원의 성금이 걷힌 것만 보더라도 한국민의 세계시민 으로서의 자각과 세계 평화와 한반도 평화와의 관계의 자각의 하나로서의 의의를 지니고 있

13) 이라크 보고서 2003.8.16 보건연합 내부문건

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이라크 의료지원활동은 처음 진행하는 국제의료지원활동이면서도 반전평화운동에 기반한 국민들의 성금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부담감이 상당히 컸고 그만큼 국민적인 의지가 엇인가를 확인하고 이를 집행하려고 노력하였다.

(2) 이라크의 보건의료상황

1980년대의 이란이라크 전쟁, 1991년 걸프전과 민주봉기와 실패, 이후 13년간의 미국의 주도에 의한 경제봉쇄로 이라크의 사회상황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고 의약품구입비가 1991년 이전에 비해 1/4로 떨어지고 영아사망률이 급격히 상승하는 등 사실상 의료체계가 거의 붕괴상태에 처해 있었다.

표 1 이라크 어린이와 영아사망률 : 현재 추정

연도	5세미만 어린이사망률	영아사망률
1960	171	117
1970	127	90
1980	83	63
1990	50	40
1995	117	98
1998	125	108

* 자료 : UNICEF(1999)

이라크는 1970년대 이후 공공의료체계를 확대하고 전국적 의료체계를 성립시킨 이후 상당한 정도의 복지지향적 의료제도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수차례의 전쟁이후 거의 붕괴되어 있었다.

표 2 남부와 중부 이라크 5세미만 어린이들의 영양상태 경향

영양실조유형	지표	1991.8	1991.9	2000.9	2002.2
만성	나이에 비한 저신장	18.7	32	30	23.1
저체중	나이에 비한 저체중	9.2	23.4	7.8	9.4
급성	키에 비한 저체중	3.0	11.0	19.5	4

* 자료 : UNICEF/Iraq Working with Children to Build a better future, 2002

이라크는 91년 경제붕쇄이후 여전히 90% 이상의 공공의료체계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의료 장비와 약품의 만성적 부족과 식량의 전적인 배급의 의존, 의료진의 상당한 해외유출등으로 의료체계 및 사회인프라체계가 거의 붕괴상태에 놓여있었다. 이번 전쟁은 그러한 이라크를 사실상의 사회인프라 및 의료체계 붕괴상태로 이끈 것으로 판단된다.

(3) 이라크에서의 보건의료활동

이번 이라크에서의 보건의료활동은 지원활동 중 전쟁의 실질적 종결로 크게 두 시기로 나뉘어졌다. 첫 번째시기는 전쟁이 종결된 직후 인 1,2진이 파견될 당시의 전후 응급지원활동 이었고 이는 바그다드내의 대형병원에 대한 수액제재와 의약품 및 마취제재 등을 공급하는 것이 주된 내용을 이루었다. 이후 전쟁이 실질적으로 종결된 후 이라크 의료체계의 재건과 관련된 활동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이라크 빈민촌에서의 이라크 의료체계의 이라크인들의 재건을 돕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이 활동은 주로 뉴바그다드의 알마쉬텔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원활동과 지역보건소체계에 대한 의약품지원으로 이루어졌다.

그의 보건의료단체연합의 보건의료활동은 전쟁으로 인한 이라크의 상황을 파악하고 전쟁의 참화를 알리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이 것은 초등학교 학생들 및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어린이 심리상태조사연구와 영양상태 조사였다. 이 내용은 이 보고서 말미에 실려있다.

한겨레 신문사와 보건의료단체연합등의 사회단체등의 활동이 시작된 후 한국에서 많은 언론사와 의료단체들이 이라크 지원활동을 벌였으나 상당수의 활동들이 대형병원 중심의 활동으로 이루어져 국제지원단체의 지원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곳에서의 활동이 중복되고 실제로 의료활동이 긴요하게 필요했던 지역에서 잘 이루어지지 못한 점, 지원이 지속적이지 못했던 점, 이라크 보건상황에 대한 전체적 파악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고 이에 의거한 지원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등이 아쉬운 점등으로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4) 반전평화활동과 의료지원활동

사실상 전쟁이후의 의료지원활동은 전쟁을 막지 못하는 한 그 한계가 뚜렷하다. 이번 우리의 활동 또한 '모래사막에 물한바가지 붓기'이상이 아니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이라크인들에 의한 이라크의 재건과 단순한 의료구호활동이 아니라 전체 의료상황을 파악하려는 노력속에서의 의료지원활동이 시도되었다는 점이 중요했다고 평가하고 싶다.

사실상 최초의 국내의 반전평화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된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이라크 의료 지원활동은 현지의 이라크 평화팀과의 연대와 현지의 지역활동가와의 연대속에서 이루어졌고 앞으로의 활동도 그렇게 이루어 질 것이다.

앞으로의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이라크 의료지원활동은 세계보건기구¹⁴⁾가 그 전략과 과제

14) WHO, Health in Iraq: Stocktake, 2003.5.7

로 지적했듯이 이라크에서의 자체역량과의 연대와 국제 NGO들과의 연대를 통해 이라크의 보건상황을 더욱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역학조사,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1차보건의료체계의 복원을 돕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것이 수차례 전쟁을 겪고 또 다른 나라에 침공군으로 참여하기도 했던 한국국민이 최초로 세계적 반전평화운동의 일원으로 참가하고 국민적 성금으로 의료진을 이라크까지 보낸 뜻을 따르는 길이라고 판단된다.

2.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후 이라크 어린이들의 심리상태연구

가. 연구 배경

전쟁은 인간의 생명과 건강에 치명적이다. 전쟁과 경제봉쇄의 대가는 전세계의 민간인들이 짊어지게 된다. 특히 5세미만의 어린이들, 노인들, 그리고 만성질환을 앓는 사람들과 가임여성들에게 집중된다.

전쟁의 장애는 단지 신체적인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전쟁에 의한 피해는 신체적인 것에 그치지 않는다. 살아남은 어린이가 설사 걸으로는 쾌활해 보일지라도 그들은 절대로 치유되지 못할 심리적인 외상(trauma)을 안고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 유니세프가 그 보고서에서 밝힌 몇 가지 예만 보더라도 이러한 심리적 외상은 명백하다.

- 1991년 걸프전 이후 이라크 어린이들 중 62%가 성인이 되기까지 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모잠비크의 난민 어린이들을 조사한 결과 84%가 폭력으로 어머니나 아버지를 잃었고, 58%가 살해 장면을 목격했으며, 32%가 납치되거나, 구타당하거나, 굶주렸었다고 대답했다.
- 1994년 르완다 어린이들은 50%가 가족이 죽는 것을 목격했고, 50%이상이 교회와 학교에서의 대량학살을 목격했으며 75%가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고 대답했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라크의료지원을 단순한 의료구호가 아니라 반전 평화운동의 일부로 파악하였고 또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한 노력중의 하나가 이라크 어린이들이 13년간의 경제봉쇄와 미국의 침공 속에서 겪고 있는 심리적 고통과 만성적 영양실조의 상태에 대한 조사작업이었다.

어린이들의 심리조사연구의 결과, 걸으로는 명랑하고 밝게 보이는 어린이들도 전쟁과 폭격속에서 우리가 흔히 심각하다고 판단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심리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겪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전쟁 직후에 행해진 연구결과여서 특히 그러하겠지만 여기 보고되는 연구 결과는 지금까지 나온 전쟁 이후 여러 차례 행해진 어떠한 어린이들의 심리상태조사보다 어린이들의 심리적 외상과 스트레스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 짧은 준비기간과 분석기간 탓에 임상심리학자들이나 전쟁과 관련한 전문 연구자들의 분석과 자문을 거치지 못하여 여

기서 제시하는 내용은 전체적인 내용의 나열에 그치는 것이지만 이것만으로도 전쟁이 인간에 특히 어린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가를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이다.

자세한 분석과 연구의 충분한 함의를 드러낼 수 있는 분석은 추후 다시 제시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기서는 조사결과를 나열하는 것에 그치는 점을 너그럽게 보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 연구방법

본 연구는 The impact of event scale, The post traumatic stress reaction check list, The child behavior inventory, Preparedness for the future 의 4주제의 56개 항목¹⁵⁾의 설문에 대해 한국에서 아랍어로 번역¹⁶⁾된 후 2003년 5월 22일부터 5월 26일 동안 바그다드시의 뉴 바그다드지역¹⁷⁾의 네 초등학교¹⁸⁾의 약 400명의 4,5,6학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실제로 회수된 설문지 중 사용 가능한 설문지는 397개였고 이중 여학생 설문지가 229부 남학생이 166부였다.

설문은 한 학급당 25명에서 35명 규모의 학급에서 설문지를 나누어주고 자기기입식으로 설문지에 답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필요한 경우 담임선생님이 설문내용을 설명을 하도록 허용되었으며(예를 들어 “그 사건”으로 표현된 부분은 ‘이번 전쟁’이나 ‘이번 미국의 침공’ 등의 내용으로 설명되었다), 학생들의 질문이 있을 경우 보다 담임선생님이 보다 자세한 설명해주도록 하였다. 5,6학년의 경우 질문이 많지 않았지만 4학년의 경우 선생님의 설명과 질문이 상대적으로 많았다¹⁹⁾. 56 항목의 질문에 대한 응답시간은 30분에서 45분 가량이 소요되었으며 무응답은 전체 항목 중 1-4% 정도로 대부분의 학생이 성실히 설문에 응답하였다.

15) Dyregrov A, Raundalen M, Child psychology study - The impact of the gulf crisis on children in Iraq - 1991,9. War and Children Foundation, Canada

16) Insook Park에 의해 영문을 아랍어로 번역

17) 주로 시아파 거주지역으로 바그다드시내의 빈민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약 140만명이 거주하는 곳이다.

18) Al Siendra, Al Thamania의 여학교와 Al Zahidib 등의 남학교 중 여자 초등학교 6학년 3학급, 5학년 4학급, 4학년 3학급과 남자초등학교 6학년 2학급, 5학년 2학급, 4학년 2학급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19) 설문을 실시한 처음 학교의 일부 학급에서는 담임 선생님이 질문을 일일이 읽어주고 학생들이 답하는 경우가 있어 다음 학교부터는 그러한 형식의 설문응답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다. 연구결과

(1) 충격척도(Impact of Event Scale)

사건에 대한 질문	“예”의 대답 비율(%)		
	여	남	계
그럴려고 하지 않는데도 사건이 생각나나요?	63.6	63.2	63.4
사건이 생각나거나 떠오르면 당황하고 피하려고 하나요?	84.1	69.2	77.8
그 사건을 기억에서 지우려고 애쓰나요?	59.6	58.7	59.2
마음속에 그 사건에 대한 생각이나 그림(영상)이 떠올라 잠을 자는데 문제(잠이 잘 들지 않거나 잠을 자다 깨는 것)가 있나요?	83.7	66.5	76.4
그 사건에 대해 강렬한 느낌이 밀려오는 때가 있나요?	88.8	91.4	89.9
그 사건에 대해 꿈을 꾸나요?	70.5	68.8	69.8
그 사건을 기억나게 하는 물건을 멀리하려 하나요?	81.5	86.0	83.4
일어난 일들이 사실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나요?	59.3	56.7	58.2
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하나요?	66.5	81.8	73.0
그 사건에 대한 그림(영상)이 갑자기 탁 떠오르나요?	90.2	81.8	86.6
다른 여러 일들이 그 사건을 떠오르게 하나요?	88.3	86.1	87.4
그 사건에 대해 아직 표현할 수 없는 많은 느낌들을 가지고 있나요?	86.9	77.4	82.9
그 사건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쓰나요?	75.9	80.0	77.6
그 사건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어떤 것들이 하나라도 있나요?	80.2	74.2	77.7
그 사건에 대한 느낌이 멍한 느낌 같은 것인가요?	67.0	54.8	61.8

* 초등학교 4-6학년 여학생 220-228명 남학생 159-167명의 응답 결과

충격척도는 외상을 주는 사건과 관련된 침해적(intrusion) 행동과 회피(avoidance)행동에 대한 조사이다. 조사내용을 보면 어린이들은 전쟁이 주는 침해적 행동에 심각하게 시달리는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이는 떠올리려 하지 않는 사건이 떠오르는 어린이가 전체 어린이의 2/3에 해당하고 90%에 가까운 어린이가 전쟁에 대한 강렬한 느낌을 경험하며 70%의 어

린이가 전쟁에 대한 꿈을 꾸고 갑자기 전쟁의 영상이 떠오르는 어린이가 90%에 가깝다. 어린이들은 이에 대한 회피행동으로 80% 정도의 어린이가 생각을 하려하지 않거나 60%의 어린이가 기억에서 지우려고 하며 73%의 어린이가 이야기를 회피하고 77%의 어린이가 생각을 외면하려 하지만 그러한 노력은 어린이들로 하여금 멍한 느낌을 가지게 하거나 표현을 할 수 없는 많은 생각들을 불러일으키게 할 뿐이다. 전쟁의 침해적 내용과 그에 대한 회피행동으로 인한 어린이들의 혼란이 안타까울 뿐이다.

(2) 외상 후 스트레스 반응 척도(Post-Traumatic Stress Reaction Checklist)

이 PTSD 즉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에 관한 체크리스트는 설문대상 어린이들의 대부분이 미국의 침공과 관련하여 불안과 공포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어린이들의 67%가 어른이 될 때까지 살 수 없을지 모른다고 걱정을 하고 70% 이상의 어린이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전쟁에 대해 계속 생각하고 겁을 먹고 당황하며 80% 이상의 어린이들이 전쟁을 생생하게 영상으로 사진처럼 기억하고 전쟁이 반복되는 것처럼 추체험을 하는 상황.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우리 세대로서는 상상하기가 쉽지않다.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기억하지 않으려고 애쓰지만 전쟁의 기억이 대부분의 어린이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상황이 과연 이 어린이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3) 소아행동척도(Child Behavior Inventory)

이 도구는 사건의 충격적 성격에 의한 정서적 및 행동적 혼란에 초점을 둔 설문이다. 이 도구는 외로움, 공포, 분노, 불안 등 어린이들의 감정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²⁰⁾.

설문 내용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 대다수의 어린이들이 슬프고 불행하다고 느끼고 가족을 잃을 것을 걱정하고 있으며 외롭다고 느끼고 짜증을 내고 화를 내며 심지어 4,5,6학년 어린이들이 20%에 가까운 어린이들이 밤에 오줌을 가리지 못한다. 전쟁후 어린이들이 공포와 불안 외로움을 상상외로 심각하게 느낀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20) 이 도구는 전쟁에 영향을 받은 어린이를 연구하는 "Bergen Columbia group"에 의해 수집되었다.

사건에 대한 질문	“예” 대답 비율(%)		
	여	남	계
그 사건에 대해 지금도 자주 생각합니까?	77.6	79.4	78.4
그 사건에 대해 생각할 때 자주 겁먹거나 당황합니까?	73.0	82.4	77.0
일어났던 일이 마음속에 떠오릅니까? 일어난 일에 대한 모습이 떠오르거나 소리가 들리는 것 처럼요	89.2	80.1	85.4
그 사건에 대해 자주 꿈을 꾸니까?	71.1	72.7	71.8
그 사건 전체가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까?	88.3	81.5	85.4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기억나게 하는 상황이나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가요?	81.6	71.6	77.4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지 않으려고 애쓰는가요?	92.1	84.4	88.8
그 사건이 일어난 후 혼자라고 전보다 혼자라고 느낀 적이 있는지요? 마치 친구나 부모님이 자기 자신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진짜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끼지는 않는지요	73.3	78.9	75.7
그 사건이 일어난 후 어른이 될 때까지 살수 없을지 모른다고 걱정합니까?	62.5	74.2	67.1
그 사건이 일어난 후 이전과 비교하여 친구들과 놀고 운동을 하고 또는 다른 놀이에 참가하여 놀이를 하는 것이 즐지 않았나요?	49.1	30.3	44.9
그 사건이 일어난 후 밤에 잠이 들기 힘들거나 잘 깨나요?	78.7	70.3	75.1
그 사건이 일어난 후 큰 소리나 갑작스러운 일에 깜짝 놀라나요?	87.5	84.2	86.1
그 사건이 일어난 후 전보다 어떤 일에 집중하기가 힘든가요?	76.6	81.8	78.9

*초등학교 4-6학년 여학생 222-227명 남학생 161-167명의 응답 결과

사건에 대한 질문	“예”라고 대답한 비율(%)		
	여	남	계
잘 우나요?	55.5	63.6	58.9
슬프거나 불행하다고 느끼나요?	83.9	81.6	82.9
많은 것에 대해 걱정하나요?	86.1	90.2	87.8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나요?	52.3	40.2	44.6
가족을 잃을지 모른다고 걱정하나요?(죽거나 이별로)	91.0	87.4	89.6
피곤하다고 느끼나요?	87.8	88.3	88.0
가족이나 친구와 같이 있기 보다는 혼자있는게 좋은가요?	31.8	44.0	36.9
외롭다고 느끼나요?	69.1	61.6	65.9
자신이 가치가 없다고 느끼나요	55.8	57.6	56.5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나요?	68.0	70.5	69.1
쉽게 화를 내나요?	73.5	75.3	74.2
쉽게 짜증을 내나요?	73.6	80.8	76.9
다른 사람들에게 말로 공격적인가요? 예를 들어 욕하고 고함치고다른 사람을 말로 헐박하고 그러나요?	49.8	48.5	49.2
다른 사람들에게 신체적으로 공격적인가요? 예를 들어 때리거나 밀거나 신체적으로 다른사람에게 헐박을 하거나 하나요?	13.4	20.6	16.5
자기물건이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부수나요?	13.1	17.1	14.8
부모님이나 선생님 말을 안듣나요?	18.8	18.1	18.5
성급하고 화를 잘내나요?	55.8	67.7	60.8
동아리에서 중요한 규칙을 어기나요?	18.3	24.4	20.9
자기잘못인데 남에게 덮어씌우나요?	26.0	25.2	25.6
열을 잘 받는 성격인가요?	62.1	66.3	63.8
다른 아이들에게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나 물건에 겁을 먹나요?	55.1	66.5	59.9
무언가 자신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거 같아서 무섭나요?	76.4	77.7	77.0
새로운 상황에 대해 겁나요? 예를 들어 새로운 장소에 가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거요.	72.7	75.9	74.0
학교일에 집중하기가 힘든가요?	67.7	78.2	72.2
안전하고 안정된 느낌을 가지려면 나이든 사람하고 있어야만 하나요?	84.6	86.0	85.2
밤에 오줌을 싸나요?	15.5	24.2	19.2

(4) 미래에 대한 질문(Preparedness for the future)

	“예”라고 대답한 질문의 비율		
	여	남	계
사건이 있는 후 어른이 되도록 살수 없을까 걱정을 합니까?	83.3	84.9	84.0
걱정이 많습니까?	79.6	83.6	81.3
가족을 죽음이나 이별로 잃는 것에 두려워 합니까?	76.8	78.4	77.5
자신에게 무슨 나쁜 일이 일어날까봐 걱정합니까?	83.9	85.3	84.5

80% 이상의 어린이들이 불행하고 외롭다고 느끼며 90%의 어린이들이 죽음이나 이별로 가족을 잃을 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85%의 어린이들이
어른과 같이 있을 때만 안전하다고 느낀다. 80%에 가까운 어린이들이 자신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느끼며 새로운 장소에 가기를 두려워한다. 이들에게 어린이로서의 호기심
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야기일 뿐이다.

라. 결론 및 덧붙이는 말

이상의 간단한 연구결과는 보다 자세한 분석을 필요로 하겠지만 미국과 일부 한국 언론,
그리고 지각없는 인사들에 의해 주장된 이라크 전쟁이 이른바 ‘족집게 폭격’으로 민간인의
피해를 최소화한 깨끗한 전쟁이었다는 주장이 완전한 거짓말임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다.

우리는 전쟁직후의 이라크에서 의료구호진으로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 많은 어린이들의
고통을 덜고 많지 않은 숫자겠지만 이라크 민중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
러나 결국 민중들의 생명과 건강을 구하는 것은 전쟁이후의 의료지원이 아니라 전쟁 자체를
막는 것임을, 따라서 우리 보건의료인들이 나서야 할 일은 의료구호와 동시에 반전평화운동
임을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후 어린이들의 심리조사결과는 명백히 보여준다.

부록 1) 치과진료 활동 보고서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정성훈/정상호/정영예/권미선)

1. 진료활동

전기공급이 원활치 않아 하루 1-5시간 정도밖에 진료를 하지 못하였다. 총 환자수는 80여명이었고 진료건수는 100건 정도였다. 발치와 신경치료가 대부분이었음.

환자들 중 치수감염으로 인한 낭종을 가진 경우가 여럿 있었고 오랜기간 방치함으로 인해 자연적 배농과 부종이 반복되고 있으나 통증이 심할 경우 약을 복용하고 심한 부종으로 인해 동요가 생기면 발치하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음. 또한, 치과 의사 역시 이를 교육하고 설득하기보다는 환자가 요구하는 대로 진료를 하거나 투약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충전으로 치료를 완결할 수 있는 경우에도 환자가 발치를 요구하면 그대로 따르는 식이었음.

2. 구강검사결과

대상 : 초등학교 6학년 학생 193명

검사방법 : 자연광 하에서 영구치만을 대상으로 치아우식증을 검사

결과 :

1. 우식경험 영구치아수 : 594개 (전치부 14, 구치부 580)
2. 우식경험 영구치 지수 : $594/193 = 3.1$
3. 충전 영구치아수 : 15개
치료율 : 2.5%
4. 외상으로 인한 전치부 파절 또는 탈락 : 22명 (11%)

우리나라 12세 아동(중학교 1학년)의 우식경험 영구치 지수는 3.3 이며 초등학교 6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는 없다. 위의 조사는 현지 사정으로 인해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두 수치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초등학교 6학년의 경우 영구치열로 채 이행되기 이전의 혼합치열기임을 고려할 때 이는 상당히 높은 우식유병율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충전 영구치율이 2.5%(우리나라 12세 아동 충전영구치율 69.4%)에 불과하여 우식치가 대부분 방치되고 있어 조기에 영구치를 상실하는 청소년들이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11%의 아동들이 외상으로 인한 전치부 파절 또는 탈락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아동들이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3. 치과장비 및 재료 공급

향후 치과진료를 할 수 있도록 유니트케어, X-ray촬영기, 아말가메터, 광중합기 등 장비와 기구, 재료를 구입하도록 4,500달러를 제공하였으며 유니트케어 구입을 확인하였다. 이후 운영은 이라크 치과 의사 2인이 오전 오후 진료를 담당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진료실 운영 및 장비, 기구 구입 확인을 만전평화팀에게 부탁하였다.

부록 2) 의사진료 활동 보고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김해룡/송관욱/김정범/우석균/김나연)

1. 참여자 : 김해룡, 송관욱, 김나연, 김정범, 우석균

2. 진행경과

1진 활동-연대모색 및 바그다드로의 길을 개척 및 현황파악(김해룡 4월12일-4월24일)

요르단 압만도착

인편으로 의약품을 보낸후 '사랑의 오아시스' 및 '이라크반전평화팀' 등 NGO와의 미팅 및 WHO Health part모임에 참석하여 연대 모색.

바그다드로의 진입

전쟁전부터 활동해온 프랑스 AMI 의사단체의 소속의사 자크와 만남.

바그다드의 상황에 대하여 듣고 향후 활동방향에 대한 그들의 경험과 이곳에서 요구되는 의료구호의 방향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1차의료기관을 같이 방문.

(쉐라톤호텔 옆블록에 있는 40병상의 외과계열병원의 원장에 의하면)대다수의 병,의원은 약탈과 안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문을 닫은 상황.

소수의 운영중인 병원은 구호물자의 보급으로 일부의약품을 제외하고는 갖추어져 있지만 전반적인 공급은 크게 부족하다는 느낌.

AL karama teaching hospital 방문

의약품은 크게 부족하지 않다. 단 의사와 직원들 봉급이 몇 달째 밀려있어서 생활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청취하였으나 병원을 둘러본 결과 청취한 내용과는 상황이 상황이 매우 다르다고 판단되었음.

안내를 받아 입원실, 응급실, 진료실을 둘러봄. 진료실은 책상과 의자만이 있고 입원실은 악취와 더 이상 더러워 질 수 없는 시트와 보호자가 환자를 돌보는 듯 간호인력은 없는 듯. 아마 의료시스템이 붕괴되고 인력 이탈 때문. 400명 정원에 100명이 입원중이고 (산부인과외과에 의하면) 태아감시기. 초음파가 없고 자연분만, 복강경수술등 기타수술은 가능하다고 함.

너무나 오랜 봉쇄조치로 인하여 무엇이 부족한지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느낌.

병실이 비어도 입원해도 달리 해 줄 것이 없음. 많은 환자를 돌려보내는 것이 관행화된 듯. 응급실은 약 30베드 중 5명의 환자가 누워있었고 엠브란스가 간간히 도착하였다. 총상보다는 교통마비로 인한 민간인 응급환자의 후송이 대부분인 듯.

Al Yamak General Hosp. 방문

매우 규모가 큰 병원. 문체는 응급실만 운영 중. 하루에 약 1,500명의 환자가 방문. 병원의 행정이 마비된 탓인지 바그다드나 인근도시에서 온 의사와 간호인력 약사들이 모두 자원봉사의 성격으로 근무. 약품의 관리나 의료물품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나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느낌. 병원의 행정회복을 위한 외부의 약품 및 재정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참고로 이곳의 의사의 월급은 약 30-50달러 수준이락로 함.

사마르 정형외과전문병원

전쟁중에도 문을 열고 약탈자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여 유일하게 정상진료한 병원. 약 100여명이 입원중이고 대부분 절단, 중상환자들.

마침 부상자 전문구호단체인 Aid international 의 프랑스구호팀이 방문중.

* 바그다드에는 현재 의료활동을 단체로 펼치는 곳은 없고 단지 한두명이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정도.

내일 암만에서 현지구입한 의약품 본진이 오면 즉시 필요 병원에 전달하고

우리도 MDM과 연대(이들이 차량 3대로 도착하여 암만에서의 약속대로 공동진료를 하기 위해 접촉을 가질 예정). 아마 yamuk나 MDM병원에서 진료가 가능할 듯. 응급구호보다 지속적 진료등 장기간 구호 필요하다고 판단됨.

"그들의 방식을 존중하고 그들의 방식이 회복되도록 도와야"한다는 원칙을 준수해야 할 것으로 보임.

2진활동 -1차 진료소에서의 순회진료시행 및 현지 조사(송관욱, 4월20일 -5월 6일)

요르단

MDM greece 요르단 담당자를 만나 바그다드에서의 연대가능성에 대하여 상의를 함.

바그다드

무사히 도착했고, MDM greece의 Dr. Dmitrich 를 만나 지역 의료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음. 결론적으로 바그다드 시내에 위치한 병원들은 거의 (32개 정도) 문을 열었고, 나름대로 의약품이나 의료진이 부족하나마 있는 정도. 그러나 충분한 양은 아니고 지속적인 공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상대적으로 외곽지역에 있는 병원들이 의약품이 더 부족한듯.

시아파들이 모여사는 뉴바그다드나 사담시티의 경우는 병원들이 아직 문을 열지 않고 있음. 이슬

람 사원인 모스크내의 소규모 진료소나 학교건물등에 임시로 설치한 진료소에서 현지 의사 한두 명이 하루 수백명의 환자들을 자원봉사 형식으로 진료하고 있다 함. 이 지역에 의료진이 결합할 가능성을 타진 예정.

뉴바그다드에서 최초의 진료

4월 28일과 29일 양일간에 걸쳐 뉴바그다드의 Daood Al Janabi Health Center(우리나라의 지역보건소 지위 정도)에서 의사 및 한의사진료를 시작함. 진료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 오후 4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

의사 1인당 하루 평균 100명 정도의 환자를 진료, 통역을 두고 진료를 하는 관계로 환자를 보는 속도가 빠르지 않아, 둘째 날에는 저녁 9시반이 되어서야 진료를 마칠 수 있었음.

의료진의 역할이 진료 이외에도 타 지역의 의료상황 파악과 적절한 의약품의 공급등을 포괄하기 위해, 아침 진료시작을 10시로 늦추고, 그 시간에 반전평화팀과 함께 다른 Health center나 소규모 진료소를 방문하고 필요한 의약품을 전달하는 작업을 병행함.

여기 Al Janabi 진료소에는 이라크 현지의사가 3명, 치과의사가 2명이라고 들었지만, 모두 상근 의사는 아니고, 하루중 몇 시간만 진료하는 파트타임 의사들이 포함된 숫자.

환자들이 현지의사에게 진료를 받은 후에도 다시 저희를 찾아와 진료를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저희가 떠난 후에 현지 의사들과 환자들간의 신뢰를 해치지 않도록 신중하게 진료에 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현지 의사들과의 정기적인 미팅이 필요, 의료진이 많아지는 4진부터는 현지의사를 구하지 못한 소규모진료소를 순회하며 진료활동을 벌이는 것도 좋을 듯함

약국에는 진통제와 항생제가 절반을 차지. 모든 통증에는 항생제가 처방. 주사제(주로 항생제)를 선호하고 경향. 다음 의료진은 농촌진료봉사수준의 준비물이 필요할 듯.

반전평화팀 가이드이자 진료내내 저희를 도와 통역을 맡아주었던 암마르씨의 경우 환자들에게 약을 내주면서 한방팀이 준비해온 약포지에 '총을 쏘지 맙시다. 동료들을 죽일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써넣고 있었는데, 인상적.

#타지원 의료진과의 병원급에서의 협진 모색에서 1차진료소를 중심으로한 독자적 진료활동으로의 전환하는 계기

평화를 갈망하고 자립을 추구하는 이라크인의 모습을 발견. 동시에 주민자치적으로 지역진료소를 건설하려는 움직임. 뉴바그다드라는 정치종교 경제적으로 보다 열악한 환경에 놓인 지역이란 점. 동시에 의료소외지역으로 의료요구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 아직 아무도 지원하고 있지 못함. 병원보다는 풀뿌리보건의료에 대한 연합의 어퍼니티 등

뉴바그다드-주로 시아파들이 거주. 정치적 차별대우로 인해 이라크 안에서도 열악한 환경에서 살

아가는 사람들임. 저희 의료지원팀이 바그다드 시내 병원에서 근무하지 않고 이런 빈민지역의 진료소를 찾아 들어갈 수 있었던 데는 반전평화팀의 협조가 절대적.

3진활동-1차 진료소중심 순회진료 및 알마쉬텔 진료소결합 (김나연 등 5월 1일-5월 31일)

진료-알바디아 스쿨

2진이 진료하던 곳은 우리나라로 치면 보건소정도인데, 그쪽엔 종교지도자 카심이 직접 관장을 하여 의료진공급이 계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의료공구 T급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된 작은 학교를 이용해서 만든 진료소에서 진료를 시작함. 오전에는 그곳에 와서 자원봉사를 하는 의사들이 있어 오후부터 진료에 결합.

환자들은 대부분 머리가 아프고, 온 몸이 피곤하고 하는 일반적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한명의 통역자를 두고 손짓 발짓으로 진료를 하려니 시간이 많이 걸림. 이곳은 모든 것이 주사제로 사용되어, 우리가 가져온 먹는 약들에 대해 신뢰가 낮은게 아닌지 걱정됨.

예방접종과 물의 정수문제

서울과 현지에서 많은 논의 끝에 범국가적 사업이며 우리의 역량이 넘는 관계로 포기.

독자적 진료소 개설 문제

- 뉴바그다드 알마쉬텔 지역에서 카심(뉴바그다드 전체 시아파 종교지도자), 아마르씨(알마쉬텔 청년활동가)를 중심으로 이전에 병영으로 사용되었던 공간(방 7개)을 활용하여 진료소를 만들 계획. 4진이 바그다드에 도착하면 우리가 결합하여 보건의료단체연합이 주도하는 독자적 진료소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이후 5진이 이라크에 들어오면 시간이 허락하는 때 MSF와 만남을 가져볼 예정임.

대형병원들의 문제

이미 국제구호 단체를 통해 어느정도 회복을 보이는 듯. 나갔던 의료진이 되돌아오고 있고, 월급도 정상화되려니 생각됨. 역시 우리는 병원보다는 일차진료에 치중하는 것이 옳을 듯 함

음용수문제와 보건교육의 필요성대두 - 병원보다는 지역으로

현지(이라크)에서 필요의약품 구매가 가능성 확인됨.

구충제가 필요함을 확인-후속팀이 준비함.

위생과 환경의 문제-보건교육의 필요성 전쟁 전에는 다들 우리처럼 물을 사 먹었음. 전쟁 후엔 공중에서 판매하는 물값이 너무 올라서 중산층조차 사먹기 어려운 상황. 물을 끓여 먹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한 30분 정도 물을 끓여 먹거나, 정수제를 타서 물을 정화시켜 먹는대거나, 하는 교육을 실시할 필요. 아니면 자체 진료소에서 환자들을 통해 교육하거나 정수제를 나누어 주는 방법도 고려가 되어야 할 것임,

모든 것이 지역주민들과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임

4진 활동-알마쉬텔 진료소의 출범(김정범 등, 5월 8일-5월 20일)

뉴바그다드 빈민가의 알 마쉬텔 지역에 진료소

독자적인 진료소를 현지인들과 함께 만들고(5월 11)고 진료(5월 12일)를 시작함. 이후 진료는 이슬람의 휴일인 금요일(16일)을 제외하고 5진까지 계속됨.

진료는 아침 9시에서 오후 1시까지, 오후 4시부터 저녁8시까지 두차례로 나누어 시행. 한낮(오후 1시부터 4시까지)에는 너무 뜨거워 휴식.

5월 16(금) 진료소를 쉬고 몇몇 거동 불가능 환자가 있는 6개의 이라크인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방문진료

알마쉬텔 진료소에서의 독자적 진료시작

진료는 하계 농촌진료봉사수준으로 급히 준비함. 역시 결론은 지역진료소 건설과 지원임. 진료를 시작하자마자 환자들이 물밀 듯이 밀려들어옴. 첫날은 오후 5시부터 불과 3시간여 진료를 하지 못했는데도 환자수는 80-100명 혹은 그 이상. 다음날은 300여명, 그 다음날은 400여명의 환자들로 북새통. 의료체계가 완전히 붕괴되어 이라크 사람들의 일차적 의료요구는 차고 넘칠 지경.

며칠간의 진료경험과 여러 병의원 및 마을의 방문경험으로도 이라크 바그다드 지역의 치안 및 행정적 공백으로 말미암아 질서가 무너지고 이에 따라 '작은 병은 의원, 큰병은 병원으로'라는 기본적인 의료전달체제도 무너져 지역주민들의 최소한의 의료요구도 제대로 충족될 수 없는 형편이라는 점이 충분히 파악됨.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기본적인 초보적인 의료요구를 소화해낼 지역 진료소의 건설과 그의 효율적 역할수행이 가장 시급한 의료지원사업이라고 판단한 2, 3진의 결론이 실증적으로 확인됨.

가능하다면 알마쉬텔 진료소와 보건단체 연합이 자매결연을 맺고 향후 최소한 6개월-1년정도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됨.

5진활동-알마쉬텔 진료소 활동 및 학교에서의 체격검사 및 어린이 심리조사연구, (우석균 등 5월 17일-5월 31일)

진료의 지속과 치과진료의 시작

5진의 활동은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및 위생사, 약사, 상근활동가 등 10명이 넘는 진료진이 도착하여 의사 및 한의사 진료를 알마쉬텔 진료소에서의 진료를 진행하였고 치과진료를 시작하였다.

알마쉬텔 진료소는 현지의사 3명을 고용하여 상시진료소의 체계를 갖추기 시작하였고(5진이 철수 시에는 4명의 의사와 6명의 간호사, 치과의사2인, 약사 2인, 무장가이드 12인 등 26인의 직원이 고용되어 있다고 들었다. 의사의 월급은 일 10\$이었고 한국의료진을 위한 통역자들의 일급은 5\$이었다, 참고로 이들의 봉급으로 일 250\$이 지급된다고 암마르씨가 전언하였음)

이라크의 의료체계

의사진과의 만남을 주선하여 Doctor Nawan 및 Doctor Lepark 등과 나완씨의 집에서 점심식사를 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라크의 의료체계 등에 대해 물어볼 기회를 가짐. 두 의사의 이야기로는 이란-이라크 전쟁까지는 그런대로 생활수준이 유지되었으나 1991년 걸프전과 민중봉기의 실패이후 UN의 경제봉쇄이후로는 생활수준이 극도로 피폐되었다고 함.

의료체계는 90%가 공공의료체계이었고 90년대 초중반까지는 무료였으나²¹⁾ 그 이후 250이라크 디나르²²⁾ 정도의 돈을 받음. 90%의 공공의료체계에서도 수술과 진료가 가능했으나 의약품이 부족하여 병원 바깥에서 약을 구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91년 이전에는 잘 모르겠으나 외래진료의 경우 환자 차트가 없었고 입원환자 차트만 있었으며 10%의 사립병원은 외래 및 입원진료차트가 다 존재했고 질 좋고 빠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²³⁾.

의사들의 교육시스템은 의과대학 6년, 인턴과정 2년, 농촌봉사 2년, 군대 2년 이후 내과계통은 4년, 외과계통은 5년의 긴 기간동안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고 하는데 확인할 길은 없었다. 농촌봉사나 군대봉사는 돈을 지불 할 수 있으면 빠질 수도 있었고 의과대학의 진급이 이른바 “사담의 친구들”에 집중되어 있어 시아파에서는 의사배출이 힘들었다고 한다. 91년 이후 의사 월급이 최저 월 1달러(의사들의 말에 따르면 15달러-30달러등)까지 떨어져 많은 의사들이 해외로 나갔다고 한다. 94년 이후 의사들의 해외방문자체가 금지되었으나 북부 쿠르드족지역을 통해 많은 의사들이 해외로 나갔다고 함. 사립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외과계통으로 의사들의 지원이 많았다고 한다. 알카미라 지역 등의 의사들에게 물어본 결과도 이와 유사하였다.

통역자로 활동했던 바그다드 대학생인 Mr Doo에게 의료체계를 물어본 결과 공공의료체계는 말로만 공짜였지 갖춘게 없어서 약을 처방받아도 반정도는 자신의 돈을 내고 외부약국에서 구입할 수밖에 없었고 암이나 중요질환의 수술은 공공병원에서는 불가능했으며 사립병원에서만 가능했다고 전했다.

1982-83년경까지만 해도 농촌 환자들의 의사방문율이 연간 4.5회 정도였고 주요장애물은 병원까지의 거리였다. 다만 병원입원율은 낮아 1000명당 68회였고 입원기간은 5일에 불과했다고 한다²⁴⁾.

새롭게 태동하는 의료체계?

이라크의 장래는 주로 미국의 손에 달려있지만 아직도 유동적이라고 보인다. 대부분의 이라크인들의 가정이 총을 소지하고 있는 등 미국이 치안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전쟁이후의 책임소재를 면하기 위해 중전을 선언하지도 않고 있어 거의 무정부인 상태이다. 이라크인의 65%를 점하는 시아파의 바그다드내 주요거주지인 뉴바그다드는 약 140만명이 거주하는 빈민촌으로 몇 군데의 지역을 방문해본 결과 70년대초의 상계동과 비슷한 수준의 거리모습을 보였다. ‘더

21) 1987년 이전까지는 모두 무료였으나 이후 약값과 일부 진료비를 받았다는 보고도 있다. National Health Systems of the World, Roemer MI, 1991, Oxford University.

22) 후세인 정권에서는 1달러당 1800디나르가 공식 환율이었으나 실질환율은 2400디나르가 넘었고 우리가 방문했을 당시에는 1달러당 900-1300디나르정도의 환율이었다. 코가콜라 한캔이 1000디나르=1달러 정도 였고 던힐담배가 2달러정도였다.

23) Roemer에 의해서도 비슷한 서술이 되어 있다. 10% 미만의 의사들만이 사립병원에 근무하고 있었다. 다만 대부분의 의사들이 사립병원에서 시간제로 근무하고 있었다고 한다.

24) Ibid, Roemer MI

러운 물이 개천을 흘러가고 쓰레기는 방치되어 있었고 집모양을 갖추기는 했으나 거주지로서는 어떻게 보아도 적합하지 않은 집에 많은 대가족이 살고 있는' 거리들의 모습이었다. 뉴바그다드 지역의 시아파 종교-정치 지도자인 카심은 전쟁이후 약 100곳의 지역진료소를 설립하였다고 들었고 우리가 진료한 알마쉬델 진료소나 의약품을 지원한 알까미라나 알바디아 등의 진료소도 그러한 진료소였다. 대부분의 진료소는 공공병원에서 half day를 근무하고 나머지 half day를 지역진료소에서 근무하는 형태의 의사들이었고 우리가 떠나올 때 쫓겨서는 일부 진료소는 스스로를 뉴바그다드 병원이라고 소개하는 등 여러형태로의 변화를 보이고 있었다. 이 진료소들은 환자들에게 일일당 250 이라크 디나르를 받았고 알마쉬델 진료소는 일일당 500디나르를 받았다.

주요 공공병원은 미군들이 진료체계를 장악하였다고 하는데 이 때문에 MDM은 이라크 의료지원을 중단할 것을 고려한다고 결정을 내렸다²⁵⁾. 미군당국은 공공병원에서 의사들에게 two half day(1일)당 20달러를 주었다는 이야기를 의사들을 통해 들었다.

김나연씨가 의뢰병원을 알아보기 위해 가까운 두 병원을 방문해본 결과 Al Mansour 병원은 500병상 정도의 병원으로 하루 당 350이라크 디나르를 받고 있었고 이 돈으로 입원 및 약과 치료 모두를 해결가능 했다고 현지 의사에게 설명을 들었다고 전했다. 다른 한 병원은 200병상 규모의 병원으로 1일당 800이라크 디나르를 받고 마찬가지로 일괄적으로 치료가 해결되는 구조였다고 한다. Al Mansour 병원은 수술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였고 신생아실과 인큐베이터도 작동하는 등 '병원'같이 보였다는 것이 전언이고 다른 한 병원도 병원 기능이 진행중인 것으로 판단되었다고 김나연씨는 전했다.

1950년대 말부터 대부분의 아랍국가에서처럼 이라크도 사회주의를 원칙으로 내세웠고 이 때문에 의료체계도 대부분 공공의료체계가 주를 이루었다²⁶⁾. 모든 주는 3차병원과 2차병원 및 보건소(main health center)와 보건지소(branch health centers)²⁷⁾를 갖추었고 모두 정부소유였으며 1987

25) 이 때문에 이른바 중립성(neutrality)의 원칙에 따라 MDM greece는 이라크에서 의료진을 철수하는 것을 본국과 상의할 것이라고 들었는데 MDM의 활동에 대해서는 들은 바 없다. MSF의 경우 소말리아에서 의료진의 중립성을 보장한 유엔결의가 파기되었다고 판단하자 의료진을 철수시킨 바 있다. "The international medical aid organisation Medecins Sans Frontieres (MSF) today announced that it has withdrawn from the Somali Aid Coordination Body (SACB). MSF fears that continued coordination through the SACB will be in conflict with the organisation's principle of neutrality and impartiality in conflict areas." Medecins Sans Frontieres (MSF), 11 July 2001, MSF withdraws from Somalia Aid Co-ordination Body. MSF와 MDM은 이와 유사한 문제로 NORTH KOREA에서 철수한 바 있다.

26) 1차세계대전 이후 이라크는 영국의 지배하에 놓여있었고 이는 1932년까지 지속되었다. 1936년 석유가 발견된 이후 이루어진 수차례의 쿠데타이후 1958년 정권을 잡은 군사집단은 사회주의이념을 내세웠다. 1968년 정권을 잡은 그룹은 이 경향을 강화하였고 1972년 대토지소유가 분쇄되었고 대부분의 공업이 국유화되었다. 1972년 소련과의 15년간의 상호동맹협정이 맺어졌고 1970년 만들어진 헌법은 사회주의 원칙을 천명하였고 1978년까지 공산당이 합법화되었다. 그러나 1978년 쿠데타이후 이라크는 서방진영과 동방진영사이에서 중립적 위치를 취했다. 1978년 이후 이후 실권을 쥐고 있던 후세인은 1989년 공식적으로 대통령이 되었다. Ibid Roemer MI, 1991, pp393

27) 86년 당시 전국에 보건소가 177개 보건지소가 587개였다고 한다. 보건소는 20000명당

년까지는 무료로 운영되었다. 이 때문에 1987년까지 이라크는 91%의 예방접종률을 보이는 나라였으며 도시인구의 100%와 농촌인구의 80%가 기본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었다. 영아사망률도 1970년에는 139였으나 1987년에는 70으로 감소하였다.²⁸⁾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체계가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우리가 진료를 지원하거나 의약품을 지원한 보건소 내지 보건지소의 형태가 우리나라식의 개인의원이 될지, 아니면 정부가 일부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될지, 최악의 경우 그대로 붕괴될 가능성조차 있다.

하나, 보건지소는 5000명당 하나를 목표로 세워졌다고는 하나 실제로는 이에 못미치는 숫자였다고 한다. Ibid Roemer MI.

28) 이외에도 석유사업, 공무원, 5인 이상 비농업부문 사업의 노동자와 가족들은 의료보험제도가 있었는데 대략 인구의 5.8%에 해당되었다고 판단된다(1986년 당시 약 100만명) Ibid Roemer RI

부록 3) 활동 일지

이라크 의료지원활동 및 보건의료단체연합 반전평화운동일지

2002. 10. 26	이라크 공격 반대 국제공동반전행동의 날. 프랭카드 및 배너 "이라크 어린이에게 필요한 것은 폭탄이 아니라 의약품입니다"를 들고 집회 참여 함
2002. 12. 1	소파개정 및 전쟁반대를 위한 보건의료인 선언 및 기자회견
2003. 2. 6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지원팀에 100만원 가량의 의약품 전달
2003. 2. 13	보건의료단체연합 내 '이라크어린이에게 의약품' 성금 모금 시작. 홈페이지 개설 (http://www.kfhr.org/iraq/main.htm)
2003. 2. 15	국제공동반전행동의 날 보건의료단체연합 70여명 참여
2003. 3. 17	"우리의 이름으로 이라크 어린이들을 죽이지 말라" 성명 발표
2003. 3. 20	미국의 공격 개시
2003. 3. 22	미국의 이라크 공격에 반대하는 국제공동반전평화대행진 보건의료단체연합 120여명 참여
2003. 3. 25	전쟁반대기자회견 및 파병안 통과 저지를 위한 국회앞 시위 참가. 한겨레신문사와 '이라크 어린이 의약품 보내기 캠페인' 관련 회의
2003. 3. 25	"전쟁과 민중의 건강" 반전토론회 개최
2003. 3. 28	한겨레 신문사 "이라크 어린이에게 의약품" 캠페인 기사 게재를 통한 캠페인 시작 주최단체 : 한겨레신문사 및 3대총단, 주관단체 :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약, 건치, 노건연, 인의협, 보건의료노조, 청한), 기독교청년의료인회, 베트남평화의료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평화를만드는 여성회, 남북어린이에게동무,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한겨레통일문화재단
2003. 4. 2	파병동의안 국회 통과 저지 집회 정리

2003. 4. 2	이라크 의약품 전달을 위한 의료진 파견에 대한 논의/이라크 의약품보내기 운동 실무팀 구성, 캠페인 시작 4일만에 7천여만원의 성금이 모금됨
2003. 4. 12	정성훈(건치), 김해룡(인의협) 1차 의료진으로 출국
2003. 4. 16	바그다드 사담정형외과에 마취제 전달
2003. 4. 20	송관욱(인의협), 이영욱 고수정(청한) 2차 의료진 출국
2003. 4. 27	성라파엘, 알-까미라, 산부인과, 및 health center에 의약품 전달
2003. 4. 28 - 29	뉴바그다드의 Daood Al janabi Central Health Center에서 진료 진행
2003. 5. 1	손정석, 김나연, 변혜진 3차 의료진 출국
2003. 5. 6	암만에서 의약품 구매 후 바그다드에 도착함.
2003. 5. 6 - 12	알- 바디아 응급진료소에서 진료 진행 / 알-까미라 등 진료소에 의약품 전달
2003. 5. 8	김정범, 정경진, 이준혁 + 김양중기자 4차 의료진 출국
2003. 5. 12	구입한 의약품을 가지고 4진 바그다드에 도착
2003. 5. 13	쿠르드난민촌 방문, 소량의 의약품 전달/알마쉬텔 응급진료소에서 진료 시작
2003. 5. 15	손정석, 변혜진 의약품 구매를 위해 요르단 암만으로 나옴
2003. 5. 16	정상호, 우석균, 김영희, 고수정, 김성수, 정영예, 권미선, 김은희 5진 의료진 출국
2003. 5. 18	5진 바그다드에 도착
2003. 5. 19- 27	알마쉬텔 응급진료소에서 진료 진행
2003. 5. 28	알-까미라, 알-바디아, 알-자하라, 알-마쉬텔, Iranian Kudish camp 진료소에 의약품 전달
2003. 5. 24- 28	8개 학교 학용품 전달(노트북, 스케치북, 치약, 칫솔, 색연필, 연필 등), 영양조사 및 어린이 심리조사, 구강상태조사등 실시